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9. 8.(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농업디지털센터장	김태우	☎ 760-7250
		농업관측팀장	김동현	☎ 760-7271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올해산 노지감귤, 생산예상량 늘고 품질은 역대 최고

- 전년보다 7.8% 증가...착과량 제주시 크게 늘고 서귀포시 소폭 증가 -
- 과실 비대기 강수량 적고 일조 등 기상환경 좋아 품질 양호 -

- 올해 제주 노지감귤 생산예상량이 지난해보다 7.8% 늘어난 44만 3,000톤 안팎으로 전망됐다. 과실 품질은 비대기에 좋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관측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.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감귤관측조사위원회(위원장 김철수)는 2026년 노지감귤 2차 착과상황 관측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.
 - 이번 조사는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도내 320개소 640그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.
- 조사 결과, 올해 생산예상량은 44만 3,300톤 내외(42만 5,300~46만 1,300톤)로 나타났다. 지난해 41만 900톤보다 3만 2,400톤(7.8%) 많은 수준이다.
 - 생산예상량은 재배면적 1만 3,972ha 가운데 성목이식과 품종갱신, 고접갱신, 절반 간벌 등으로 열매를 맺지 않는 448ha를 뺀 1만 3,524ha를 기준으로 산출했다.
- 나무 한 그루당 평균 열매 수는 909개로 지난해 800개보다 109개, 최근 5년(2021~2025년) 평균 813개보다 96개 많았다.
 - 제주시는 813개로 지난해보다 301개, 평년보다 107개 많았다.

지난해 해거리로 착과량이 적었던 데 따른 것으로, 한림지역은 지난해보다 7배 이상 늘었다.

○ 서귀포시는 941개로 지난해보다 80개, 평년보다 43개 많았다. 남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열매 수가 늘었으며, 대정지역은 지난해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.

○ 열매 크기는 제주시가 41.9mm로 지난해보다 3.7mm, 평년보다 2.6mm 작았다. 서귀포시는 43.6mm로 지난해와 같았고 평년보다 0.3mm 작았다.

□ 품질은 당도가 높고 산 함량은 최근 5년 평균보다 낮아 전반적으로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.

○ 당도는 8.5브릭스로 지난해보다 1.1브릭스, 최근 5년 평균보다 1.4브릭스 높았다. 산 함량은 3.14%로 지난해보다 0.23%p 높았으나 최근 5년 평균보다는 0.15%p 낮았다.

○ 지역별 당도는 제주시가 9.0브릭스, 서귀포시가 8.1브릭스로 나타났다.

○ 과실이 커지는 시기에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7~8월 비가 적게 내린 가운데 일조 조건이 좋아 품질 향상에 유리한 날씨가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.

※ 평균기온: 6월 평년 대비 0.9℃ ↑, 7월 2.0℃ ↑, 8월 1.8℃ ↑

※ 강수량: 6월 평년 대비 86.6mm ↑, 7월 115.3mm ↓, 8월 92.4mm ↓

※ 일조시간: 6월 평년 대비 3.4시간 ↓, 7월 36.5시간 ↑, 8월 16.9시간 ↑

□ 농업기술원은 11월 품질과 결점과율 등에 대한 3차 관측조사를 실시해 최종 생산예상량을 통보할 예정이다.

□ 김태균 농업기술원장은 “올해 생산예상량이 지난해보다 7.8%

늘 것으로 예측되지만, 품질이 관측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
이어서 소비자 만족도는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” 며 “앞으로
도 이상기상에 따른 생육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 자료에
기반한 신뢰도 높은 관측정보를 제공할겠다” 고 말했다.